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순례단이 다르마라지카 대탑 주위를 돌며 탑돌이를 하고 있다. 다르마라지카는 복합사원으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있었지만, 현재는 사원 터와 일부 훼손된 불상만 남아있다.

지극한 信心 묻어난 전륜성왕 발자취

특별기획 동서 문명 교차로 파키스탄을 가다

① 간다라문명 발상지, 페샤와르

② 아소카왕의 고향, 탁실라

③ 목숨 건 전법 여정, 길기트

대한불교조계종은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파키스탄 내 불교 유적을 순례했다. 탁실라는 순례 6일차인 21일에 방문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탁실라는 기원전 마우리아왕조부터 쿠샨왕조까지 불교와 간다라문명이 번영한 곳이다. 특히 전륜성왕인 아소카왕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불교적으로 의미가 크다. 아소카왕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다르마라지카부터 고대 불교의 교육공간인 줄리안 사원, 이 지역 간다라유물을 한데 모은 탁실라 박물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파키스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이 슈라바스티(사위성) 제타숲에 있을 때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은 제자인 아난과 탁발을 위해 성 안에 들어갔다. 길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흙을 모아 집과 창고를 지으며 한창 소꿉장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멀리서 걸어오는 부처님을 바라보고 그 모습에서 무한한 공경을 느꼈다. 이 아이는 흙으로 지은 소꿉놀이 창고에서 곡식이라 이름 붙인 흙 한 줌을 쥐고 부처님에게 달려갔다. 보시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이끈 걸음이다.

부처님은 발우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며 아이가 건넨 정성스런 흙 한 줌을 받았다. 그리고 아난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내 처소 방바닥에 바르라."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아난은 부처님 말씀대로 처소 방바닥에 흙을 발랐다. 그러자 부처님이 다시 말했다. "아까 그 아이는 이 공덕으로 내가 열반한 지 100년 뒤에 국왕이 될 것이다. 이름은 '아수가' 요, 나를 위해 8만4000개의 탑을 세울 것이다."

〈현우경〉 '아수가시토품' 의 이야기다. 부처님이 '아수가' 라고 명명한 아이는 바로 기원전 3세기, 인도 마가다국 마우리아왕조의 세 번째 왕이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Asoka)다. 아소카는 불교에 귀의하기 전까지 '피의 군주' 였다.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장남인 수시마를 비롯해 99명의 배다른 형제와 자신을 반대하는 500명의 신하를 숙청하고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냉혈한이던 아소카는 동부 해안 칼링가국과의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자 참회하며 불교에 귀의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이 지켜야할 윤리 '다르마(dharma, 法)' 를 정치 이상으로 삼았다.



다르마라지카 대탑은 기단부가 잘 보존돼 있지만 상단은 훼손이 심해 현재 수풀이 무성하게 덮여 마치 무덤을 연상케 한다.



다르마라지카에 남은 불상 족상. 이교도 훼불로 인해 발목과 가사자락의 밑 부분만 남아 순례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진신사리 모신 다르마라지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탁실라(Taxila)로 이동하며 잠시 아소카왕을 떠올렸다.

아소카왕은 불교사에서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 왕, 즉 전륜성왕으로 평가된다. 인도를 통일해 전역에 사원을 건립하고, 부처님을 기리는 석탑을 세워 지역에 국한된 종교였던 불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도록 한 인물이다. 부처님은 어린 아소카의 장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불교사에서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운 아소카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사실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아소카는 생몰연대조차 분명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소카왕의 고향도 확실하게 알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기자가 탁실라를 아소카왕의 고향으로 표현한 이유는 아소카의 삶에서 탁실라가 갖는 의미가 어느 지역보다도 남다르기 때문이다.

아소카왕의 할아버지이자 마우리아왕조를 창건한 찬드라굽타는 어려서부터 탁실라에서 군사전술 교육을 받으며 용병을 모아 힘을 길러 대중적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 그리고 아소카 역시 18세에 왕자 신분으로 탁실라를 다스렸다. 고위관료들의 편을 들던 수시마 왕자의 통치에 반란을 일으킨 탁실라 백성들은 아소카 왕자의 등장에 적극 환영했다. 아소카는 왕위에 오른 뒤 탁실라를 제2의 수도로 천명하고 자신의 아들인 쿠날라도 탁실라로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계모의 계략으로 아들이 두 눈을 잃자 계모를 비롯해 탁실라 백성까지 몰살시켰다. 이처럼 탁실라는 아소카왕의 삶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주 무대다.

탁실라는 하나의 사원이 아닌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오래 전 학문의 도시로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간다라시기 수많은 승려들이 수학한 곳이자 중국과 서양을 연결한 실크로드의 지류로 경제 · 문화의 도시였다. 지금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기도 하다.

탁실라는 산스크리트어 옛 이름 '탁샤실라(takṣa-śiras)', 즉 '잘린 머리' 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이었을 때 자신의 머리를 남에게 바쳤다는 의미에서 '탁샤실라' 라는 이름을 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미츠야마 지역 순례

B4
출판
서정형의 〈空 · 반야심경 읽기〉

B5
문화
뮤지컬 '삼국유사'